

金剛杵第拾七號目次

第二千四百九十五回の佛誕을 마치고	許永鎬 (1)
新春과 卒業生	吳官守 (2)
卒業祝賀를 마치고	李智英 (2)
佛陀의 戒 (칠유스경) 에 대하여	崔英煥 (4)
唯法的立場에서 본 『我』의 省察	許永鎬 (11)
佛敎의 精神	根應觀 (22)
生의 力	金應海 (24)
對 朝鮮佛敎僧侶大會를發起한 諸君에게	金剛子 (25)
僧侶大會를 마치고	夢庭生 (31)
僧侶大會를發起한 諸君에게	化竹 (34)
湖南雜感의 一端	李德進 (37)
地卜에 호르른 愛	春雨 (39)
戊辰回顧	金再榮 (41)
그사 략은	유문生 (43)
佛青年의 기一言	許永鎬 (45)
남생각 (詩調)	몽빛 (50)
夢 (詩)	동인 (50)
消息	夢 (51)
業鏡臺	夢 (52)
編輯餘言	

第二千四百九十五回佛誕의 마즈마

▲二千四百九十五年 四月八日 雪山南麓의 藍毘尼園에서 全人類는 그의 總苦惱의 滅을 施設覺證시켜 주실 大雄法聖을 마즈시니 矣

明行足 世間解 無上士 佛陀 釋迦世尊의 시대。當時간지스강가와 마가다들은의 濟々급은 修行者 波羅門과 爛熳한 文化의 氣은 필경 이 大雄法聖을 마지라는 曉星의 群이었고 撒花의 籠이였다。그리고 愛欲의 毒에 얼이고 無知의 毒에 잠들어 제의 옷깃을 제가 스사로 밟고 업드려 지면셔도 오이려 反復의 력을 버지날수업든 人類는 明慧滄弊의 行境에 다스를 因緣을 가지게 되엇든 것이다。아 거 특한 誕生이여。

▲二千四百九十五年間 佛陀 釋尊의 深遠한 智慧와 無邊한 慈悲의 最勝敎法은 가 는 곳마다 有漏衆生을 敎化調伏하지 안음이 없었고 愛欲有情을 引路濟度하지 안음이 없었스니 無常無我 不住涅槃 (不住生死) 의 聖法은 이케 東洋을 것치고 西洋에 舍치어 佛敎의 本義 俯仰의 理想을 一步一步 實現하라는 機運은 짓고서 잇다。이 거룩한 佛誕과 함께 究極한 法輪의 轉力이 안인가。

▲二千四百九十五年後 오늘날 맞는 全世界 大衆들이여 이날을 어더케 마즈라 는가 이날을 어더케 讚仰하라는가? 그리고 朝鮮의 大衆들이여 이날을 어더 케 마즈라는가? 가진 儀式과 가진 方法으로서 이날을 讚仰할것인가? 그러나 보다도 佛陀在世當時의 佛弟子 比丘衆처럼 熱烈한 精誠과 不拔의 信心으로 佛陀의 法을 宣布할것이다。그리고 또 宣布할것이다。이것이 오주 佛陀 釋尊의 誕生을 讚仰하는 本義이고 아울러 佛徒의 使命이다。佛誕을 讚仰하자。佛法을 宣布하자。俯仰을 完成하자。(許)